농·수·신협 등 상호금융 주택담보대출 ‘뚝’

지난 8월 LTV 규제 완화 이후 실적 거의 제로

예대율 상향 등 영업규제 완화 해줘야

“주택담보대출 신규요? 제로라고 봐야죠. 고객들이 얼마나 영리한데요. 실적은 내야하고 신규대출은 없고, 죽을 맛이네요.”

농·수·신협 등 시중 상호금융사들이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뚝’ 끊기다시피 하면서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13일 지역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8월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완화한 이후 상호금융사를 통한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금융권의 월별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올해 1~7월 평균 3639억원이었지만 규제가 완화된 8월엔 증가액이 801억원, 9월엔 74억원까지 급감했다. 월별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이 규제 완화 전과 비교해 2%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지난 10월엔 마이너스(-)로 돌아섰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상호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9월 말 기준으로 56조3450억원이다. 전체 대출 자산의 30%가량을 차지한다.

하지만 같은 기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급증했다. 은행권의 월별 증가액은 올 1~7월 평균 1조4000억원이었으나 8월엔 4조6000억원, 9월엔 3조50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통상 상호금융권 대출 금리는 은행권보다 많게는 5%포인트 높다. 규제 완화 이후 일반인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릴 여력이 더 생긴 만큼 상호금융사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않고 은행으로 눈을 돌리면서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수도권보다 자금이나 영업력이 딸리는 광주·전남의 경우 정도가 더욱 심한 실정이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의 ‘8월 광주·전남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역 비은행금융기관 여신은 지난 7월 3462억원에서 8월엔 969억원으로 증가폭이 한 달새 무려 2500억원 가량 축소됐다.

또, 가계대출은 전월 2899억원에서 858억원으로 2041억원이 감소했고, 주택담보대출도 전월 1067억원에서 61억원으로 1006억원 줄어들었다. 비은행 금융기관별 여신은 상호금융(1884억원→777억원), 새마을금고(1062억원→63억원), 신용협동조합(308억원→188억원) 등이었다.

지역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상호금융 조합 창구에서 내주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은 거의 없어진 분위기”라며 “만기를 연장하지 않고 상환만 이뤄지고 있어 10월부터 잔액이 줄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또 “이는 단순한 고객 이탈이 아니라 대출 자산이 축소되고 영업기반마저 흔들릴 우려가 있는 중대한 문제”라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일부에선 상호금융사에 대한 예대율(대출금을 예수금으로 나눈 비율)이나 LTV 기준 등 일부 영업규제를 완화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은행에 적용되는 예대율 기준은 100%지만, 상호금융사에 적용되는 예대율 기준은 80%다. 상호금융사의 영업기반이 훨씬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부실대출과 관련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문제”라는 유보적 입장이어서 상호금융사의 주택담보대출 감소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1960.51 (-6.76)
▲ 금리 2.21% (+0.01)
▲ 코스닥 547.70 (+1.24)
▲ 환율 1096.60원(+0.60)

광은, 인터넷 뱅킹으로 가입 ‘연금저축계좌’ 개설

광주은행(은행장 김장학)은 개인 노후자금 마련과 세테크에 도움을 주는 ‘연금저축계좌’를 은행권 최초로 인터넷 뱅킹을 통해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고 13일 밝혔다. ‘연금저축계좌’는 한 계좌에 하나의 펀드만 가입할 수 있었던 기존 연금펀드와 달리, 하나의 연금저축 펀드통장 내에서 총 5개의 다양한 펀드에 분산투자하고 통합관리할 수 있는 상품이다.

이 상품의 연간 납입한도는 1800만원이며 최대 연 4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 없이 수시로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 광주은행은 지방은행 중 유일하게 연금저축계좌를 판매하고 있다.

유봉재 광주은행 수익증권팀장은 “2014년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고객들이 재테크와 세테크의 대표 상품인 연금저축계좌를 인터넷뱅킹으로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준비했으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광주·전남 금융기관 여신 증가 수신 감소

지난 9월 광주·전남지역 금융기관의 여신은 증가폭이 확대된 반면 수신은 증가폭이 크게 감소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13일 발표한 ‘2014년 9월중 광주전남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 자료에 따르면 전달 대비 총여신 증가폭은 지난 8월 2220억원에서 지난 9월 4752억원으로 크게 늘어난 반면, 총수신은 8848억원에서 -4307억원으로 큰폭의 증가에서 감소로 급전됐다.

총여신이 큰폭으로 증가한 이유로는 예금은행의 경우 가계대출 및 중소기업대출이 모두 늘어난 점 그리고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 개발기관, 상호금융 등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크게 확대된 점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총수신의 증가폭 감소 이유는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 자산운용사, 새마을금고 등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확대됐지만 예금은행에서 전월 말 휴일에 따른 결제자금 이월, 지자체의 재정자금 인출 등에 따른 증가폭 감소가 총수신 전체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기초연금 수급자 확대

거주지 불분명 대상자 조사

국민연금공단이 기초연금 수급자 확대를 위해 거주지 불분명 대상자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노주순)는 경제적 또는 개인적 사정으로 거주불명 등록된 어르신을 위해 지난달 21일부터 두 달간 보건복지부와 광주시와 함께 거주불명등록자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올해 7월 시행된 기초연금의 수급자 확대를 위한 조치다. 광주시의 거주불명등록자 중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1400명으로 국민연금공단은 거주불명자의 최종 주소지를 방문, 가족면담·주변탐문을 거쳐 기초연금제도 신청을 안내한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동사무소 또는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062-958-2030)로 문의하면 된다.

/김대성기자 bigkim@

‘사랑의 헌책·헌신발 보내기’ 참여 후끈 13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9층 특설 접수대에서 펼쳐진 ‘사랑의 헌 책·헌 신발 보내기 캠페인’에 고객들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코끼리발 증후군’으로 알려진 피부병으로 고통 받는 아프리카 어린이들과 지역 저소득층 어린이를 지원하기 위한 이 캠페인은 오는 30일까지 진행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골든브릿지저축은행 인수 뜨거운 3파전

광주·전남에 기반을 둔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의 인수전이 뜨거워지고 있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달 말로 예정된 골든브릿지저축은행 매각을 앞두고 미창석유공업이 매각주관사에 인수의향서(LOI)를 내고 본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골든브릿지저축은행 본입찰에 관심을 보인 곳은 웰컴저축은행, 조은저축은행, 미창석유공업 등 3곳으로 압축됐다. 이번 새로 입찰 의향을 비친 미창석유공업은 부산에 기반을 두고 자동차, 선박, 산업용 윤활유등을 생산 공급하는 업체다. 지난해 말 연간 매출 3703억원, 영업이익 233억원을 기록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전남도, 中서 182만달러 농수산 식품 수출 상담

한·중 FTA 타결과 함께 중국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기로 한 전남도가 지난 12일 중국 사천성에서 열린 ‘제15회 중국서부국제박람회’에 전남 농수산식품관을 설치·운영해 182만 달러 상당의 수출상담 실적을 거뒀다.

전남도는 중국 서부지역 2억명의 소비자를 공략할 신규 바이어 발굴과 시장 진출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중국서부국제박람회에 홍보관을 마련해 30여명의 현지 바이어와 수출상담을 벌였다.

수출상담 결과 무안 현대영농조합법인은 중국 현지 수입회사인 미지국지상무유한공사와 연간 100만 달러 규모의 양파즙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나주 한국전복연구소는 루저우상무유한공사와 연간 25만 달러 규모의 전복비타민, 전복과자 등을 수출하기로 했으며 현지 지역총판 계약을 체결해 중국 내륙시장 진출을 위한 유통망을 확보했다.

광양 다압매율영농조합은 성도성무유한공사 등 3개사와 27만 달러, 순천 동부생약영농조합은 성도입신무역유한공사 등 5개사와 13만 달러, 나주 동의나라는 성도한도상무유한공사 등 3개사와 10만 달러, 장흥 대륙식품은 성도오하우유한공사 등 3개사와 7만 달러 상당의 수출상담을 실시했다.

나정수 전남도 국제통상과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전남 농수산식품의 중국 내륙시장 진출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2018년까지 대중국 농수산식품 수출 1억 달러 달성을 위해 중국 현지에 전남도 판매장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전력거래소 이사장에 유상희 동의대 교수 선임

전력거래소는 13일 제7대 이사장에 유상희(57) 동의대 경제학과 교수가 선임됐다고 밝혔다.

유 신임 이사장은 대구 출신으로 연세대, 미국 노던일리노이대 대학원(경제학 박사)을 졸업하고 산업연구원 환경소재산업 연구실장, 전력정책심의회 위원, 포스코경영연구소 미래성장연구센터장, 한국환경경제학회장을 지냈다.

/연합뉴스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나주혁신도시로 오세요!

한빛타워 분양/임대

규모 : 지하1층, 지상8층
준공예정 : 2015년 5월
• 혁신도시를 대표하는 초대형 빌딩
• 핵심상권에 위치 고객 흡입력 우수
• 인접상가에 비해 분양가 저렴
• 신탁회사 자금관리로 수 분양자 보호
• 시행사 | 한빛가람(유) • 시공사 | 건해종합건설(주) • 신탁사 | 아시아신탁(주)

프라임타워 분양/임대

규모 : 지하1층, 지상5층
준공예정 : 2015년 2월
• 유흥 밀집지역에 위치 유동인구 접근성 우수
• 높은 층고로 인한 업종의 다양화 실현
• 후면건물 모텔 신축으로 위락시설 시너지 효과 창출
• 신용등급 높은 대형건설사 책임시공
• 시행사 | (주)프라임글로벌, (주)프라임개발 • 시공사 | (주)탑인프라 • 신탁사 | 아시아신탁(주)

다성드림메디컬타워 임대

규모 : 지하1층, 지상6층
준공예정 : 2015년 3월
• 위치·가격·품질 넘버원!
• 상가오피스텔 밀집지역으로 쇼핑 및 휴식거리 형성
• 인접상가에 비해 임대가 저렴
• 높은 전용률 극대화로 임차인 이익 실현
• 시행사 | (유)다성 • 시공사 | 남도건설(주)

분양·임대문의 (061)333-7077 / 010-5587-3080 혁신도시의 모든 것 상담환영
주식회사 오 늘 나주솔로몬 공인중개사